

곡성중앙초, 색다른 재미가 있는 '신기방기 놀이터' 개장

곡성교육청 지원,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공모사업 통해 추진 2020년 학생자치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놀이터 조성 사업'

곡성중앙초등학교는 지난 4월 22일 곡성군미래교육재단과 곡성교육지원청, 곡성군의회, 관계 협의회, 지역민 및 어린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내에 조성된 '곡성꿈놀자 놀이터 신기방기' 개장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엔 조성된 놀이터는 2020학년도 곡성중앙초등학교학생자치회의 제안을 시작으로 곡성교육지원청의 지원 및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의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되었다. 학생들은 개진 소주병에 발이 다칠 뻔했던 친구의 경험을 시작으로 학교 운동장에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지 조사하고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학교 운동장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학습을 전개했다. 더불어 학생자치회 의견 마켓에서 모은 의견을 통해 학교 운동장이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지역 기관에 전달한 것이 시작이었다. 실제 과정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와 연계한 교육활동 등을

통해 전교생의 의견을 그림과 글로 받았다. 또한 디지털 교육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나라의 학교와 놀이터를 직접 찾아보고 공유 앱을 사용하며 서로의 의견을 전교생이 공유했다. 학생 공간 지원단 대표들은 모인 의견을 디자인 캠프에서 다양한 재료로 구현했다. 학생들은 원하는 놀이터의 공간을 모형으로 소개하며 어른들에게 꿈꾸는 놀이터를 설명하였다. 제안한 공간에는 야외 수업 공간, 무대, 구령대 미끄럼틀, 집라인, 트램폴린, 트리하우스, 모래 물 공간 등이 있었다. 더불어 학부모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미래 학교 놀이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학생들의 현실성 있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타지역 놀이터 탐방, 드로잉 공유회를 거쳐서 놀이터를 만들어갔다. 그러나 이 과정 중에서 교육공동체는 미래 교육 환경에 적합한 환경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화두를 던지게 되었다. 학교 교직원들

은 기존 놀이터와 운동장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안에서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구현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수목이 몇 그루 제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역 동문회의 의견과 학생들의 의견을 맞춰나갔으며 나무는 놀이터의 일부가 되어 서로의 미래를 키우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개장식에 참여한 최예나 학생(곡성중앙초 1학년)은 "유치원에서 즐겁게 놀았던 것처럼 나무 집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아요. 뭔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많이 놀고 싶어요"라며 학교 생활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학교 복합시설은 전국에 많으나 지자체와 교육청의 MOU체결 및 협업을 학교 운동장에 놀이터를 만든 것은 전국 최초이다. 놀이터 지역 협의회에서는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군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통과하였으며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군)에서 담당하고, 놀이터 활동가는 교육재단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김갑용 교장은 "우리 학생들의 제안으로 시작했던 놀이터 조성 사업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기획, 설계, 감리까지 참여한 결과로



만들어진 최종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어린이와 민관·학이 모여 함께 만든 놀이터에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터 운영·관리에도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곡성=양혜영 기자

화순교육청, 2023년도 맘-품 지원단 발대식



화순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27일 맘-품지원단의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맘-품지원단은 화순관내 배려대상 학생들에게 가족의 정을 나누주고 멘티 학생들의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해 안전망 역할을 하고자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10명의 멘토와 20명의 멘티가 함께 구성되어 있다.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 이후 교류가 없었던 멘토간의 첫 만남을 3년만에 성사시키며 2023년도 멘토 위촉식을 시작으로 2023년도 사업 운영 안내와 멘토 자체 사례공유 및 맘-품지원단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 시간을 가졌다. 맘-품지원단은 정기적인 만남과 연락, 문화 체험활동과 학습지도, 생필품지원 등의 다양

한 활동을 통해 엄마의情况进行 느끼게 함으로써 멘티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을 위해 주1회 이상 활동하고 있다. 이를 화순관내 식당, 카페, 가구점 등이 포함된 13개의 상점이 후원의 집으로 등록하여 맘-품지원단 학생들에게 후원 및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돕고 있다. 올해 신규 단원이 된 멘토는 "현장에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매일 보고 느끼지만 내가 맘-품지원단의 단원이 되어 멘토를 만나고 또 이러한 이유로 한번 더 돌볼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무언가를 더 해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느낀다.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 하겠다"는 포부를 보이기도 했다. 조영래 교육장은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멘토님들께 감사드리고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지켜달라며, 화순교육지원청도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영암고, 학교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역량강화 연수 실시



영암고등학교는 지난 4월 26일 수요일 교내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김00 선생님을 모시고 실시한 이번 연수는

교원들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비 및 준비위해 마련

교원들이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앞으로 시행될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교 계획부터 타 학교의 다양한 융합수업 사례 등을 알아보고 고교학점제의 운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학습하며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 및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김00 선생님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런 연수들을 통해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화순 능주초, 인공지능·메타버스 교육 프로그램 체험 실시

'학교로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화순 능주초가 4월 27일 SW·AI교육 활성화와 컴퓨팅 사고력 증진을 위해 화순교육지원청 지원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인공지능·메타버스 교육 프로그램' 체험을 실시했다. 1,2학년은 조작이 쉬운 로봇으로 엔타이니와 친해지기, 로봇과 함께하는 경기를 체험했

고, 3,4학년은 모듈형 로봇의 이해로 모듈을 활용하여 다양한 로봇을 구성해보고 제어하는 활동을 했다. 5학년은 자율주행의 정의를 알고 자율주행을 코딩으로 구현하는 체험을 했다. 6학년은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활동으로 온라인 상에서 보물찾기 체험과 메타버스 톨을 활용한 모듈별 작품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화순=박순철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